괴테의 시 「식물의 변형」을 통해서 본 경험과 이념*

임재동**

〈차 례〉

1. 괴테에서 경험과 이념의 문제
2. 경험과 이념의 간격
3. 경험과 이념의 연결
4. 경험과 이념의 공존
5. 자연과 인간의 합일

【국문초록】

괴테는 자연학(오늘날의 자연과학)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들을 남겨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자신의 사유를 정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괴테의 활동 시기는 18세기와 19세기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독일 관념철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으며 그들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흔적이 남아 있다. 특히 인식론의 측면에서 인간이 오성의 형식을 대상인 소재에 부여할 때 인식한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890)

** 충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고 생각하는 칸트의 사상이 한창 세상에 나올 때, 괴테는 칸트의 저서들을 접하면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경험한 것과 사유한 것이 일치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들을 자연관찰(오늘날의 자연과학)을 통해서 시와 식물학, 색채론 등으로 남겨놓고 있다. 이 분야에 경험과 이념이 근본적으로 일치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풀려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오성이라는 인식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 종합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 그는 인간 이성 중심의 사유방식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괴테는 칸트의 인식론에서 불가지론으로 남겨놓은 대상 자체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인간의 인식에 대해 주체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괴테도 물론 생애의 후반기에는 칸트와 더불어 실러의 사상에 동조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유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법칙을 이끌어 내주는 역할을 하며 그럼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보완적 관계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그의 시 「식물의 변형 Metamorphose der Pflanzen」에서 잘 표현되고 있으며, 시에서 구현되고 있는 핵심, 즉 경험으로부터 이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개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인간은 자연을 떠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제어: 경험, 이념, 변형, 자연

1. 괴테에서 경험과 이념의 문제

괴테는 자연관찰자로서 많은 글들을 남겨놓았다. 색채론, 광물

학, 식물연구 등 자신의 눈으로 보는 대상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고, 관찰한 대상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닌(뉴튼 이후의 수학적 분석적 방법이 아닌) 시인으로 느낀 부분들을 정리해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찰하는 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에서 과연 우리 자신과 외부세계가 서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칸트의 『순수이성비판』과 『판단력 비판』을 접하고 (특히 실러와의 만남 이후) 경험과 이념에 대한 문제에서 칸트식의 철학적 사유에 대해 공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1] 칸트의 인식론에서 경험과 오성은 서로 분리된다.[2] 붉은 빛, 향기 같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직관이라고 하고 이 직관에 상대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개념이다. 우리가 감성으로 대상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인 오성에 의해 결합(종합적으로)됨으로써 경험적인 개념이 발생한다. 우리가 어떻게 외부세계와는 관계없이 선천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칸트는 우리 안에 외부와는 무관한 오성능력을 전제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경험과 이념이 서로 일치될 수 있을까하는 문제는 괴테에게도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곳곳에서 그 고민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관찰자가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이 양자를 일치시킬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괴테는 "'이념에 부합되는 경험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경험은 이념과 일치될 수

1) Vgl. Goethe, Einwirkung der neueren Philosophie, HA BD.13.

2) 이 논문에서 칸트의 인식론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 않은 범위로 생각되어 구체적인 문헌이나 연구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괴테의 인식방법을 차별화하는 범위에서 기본적인 범위만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실러는 칸트의 미학을 이어받은 작가로서 칸트철학적 사유를 괴테에게 설명해주어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 둘의 관계는 독일 고전주의를 성립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러의 입장이나 칸트의 철학 내용을 다루기에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하나의 과제로 남긴다.

없다는 점에 이념 본래의 성격이 담겨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내가 경험이라고 말한 것을 그가 이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둘 사이에는 매개하는 것, 관련지우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3]고 말한다.

괴테가 상징식물 eine symbolische Pflanze이라는 개념을 말했을 때, 이 상징식물은 외부세계에 있는 경험 가능한 사물이 아니라 괴테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상(像)일 뿐이다. 칸트식의 표현으로는 그것은 우리 마음의 내용인 표상 Vorstlellung이다. 괴테는 그러나 이 생각 Meinung을 눈으로 본다고 표현한다.[4] 이것은 괴테가 자신과 외부세계를 분리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즉 칸트가 내세운 경험의 영역과 우리의 오성의 영역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선천적인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5], 그러한 사유방식은 자신의 창작능력을 방해하거나 개선시키지 못하는 느낌을 토로하며, 칸트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연을 유기적인 생성과 변형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관찰한다.[6] 그것이 바로 식물의 변형과정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집중되며, 자신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괴테가 칸트식의 표상인 감각적으로 느낀 상징식물을 설명하자, 실러의 대답은 "그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념입니다."라고

---

3) Goethe, Glückliches Ereignis, HA. Bd.10, S. 541. "Wie kann jemals Erfahrung gegeben werden, die einer Idee angemessen sein sollte? Denn darin besteht eben das Eigentümliche der letzteren, daß ihr niemals eine Erfahrung kongruieren könne." Wenn er das für eine Idee hielt, was ich als Erfahrung aussprach, so mußte doch zwischen beiden irgend etwas Vermittelndes, Bezügliches obwalten!

4) 이런 의미에서 괴테에서의 눈의 의미를 감각적인 눈과 정신적인 눈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눈이 갖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는 경험과 이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감각적인 눈은 경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눈은 이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Vgl. Fritz Joachim von Rintelen, Der Rang des Geistes, Tübingen 1955, 174 ff.

5) Vgl. Goethe, Einwirkung der neueren Philosophie, HA BD.13, S.26-27.

6) Vgl. Ebd., S.27.

말한다. 이에 대해 괴테는 비록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념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눈으로 보기조차 하다니 나로서는 기쁜 일입니다."[7]라는 반응을 한다. 이 둘의 차이는 칸트에 정통한 철학자와 같은 실러의 인식론과 사실주의자로서의 괴테의 인식론의 차이가 될 것이다. 그러한 차이에서 우리는 괴테가 필요로 했던 인식의 메카니즘의 한 방편을 만날 수 있다. 괴테가 이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이라고 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말을 생각해보자.

> 자연이 그 창조물을 시기할 만큼 근원식물은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창조물입니다. 그것을 도출할 수 있는 모델과 열쇠라면, 우리는 연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식물들을 무한히 고안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식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수 도 있는 것이며, 그림이나 혹은 문학작품의 환영이나 가상이 아니라, 내적인 진리와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8]

괴테는 식물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러한 다양한 대상들 속에 있는 어떤 공통의 요소를 생각할 때, 그 이념적인 통일성을 근원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은 우연한 요소가 아닌 필연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무한하게 병렬시킬 수 있는 식물들의 모습들로부터 그 모습을 가능하게 하는 식물을 고안해내

---

7) Goethe, Glückliches Ereignis, HA. Bd.10, S. 540. Das ist keine Erfahrung, das ist eine Idee. das kann mir sehr lieb sein, daß ich Ideen habe, ohne es zu wissen, und sie sogar mit Augen sehe?

8) An Herder, Neapel, den 17. Mai 1787. Die Urpflanze wird das wunderlichste Geschöpf von der Welt, um welches mich die Natur selbst beneiden soll. Mit diesem Modell und dem Schlüssel dazu kann man alsdann noch Pflanzen ins Unendliche erfinden, die konsequent sein müssen, das heißt: Die, wenn sie auch nicht existieren, doch existieren könnten und nicht etwa malerische oder dichterische Schatten und Scheine sind, sondern eine innerliche Wahrheit und Notwendigkeit haben. Dasselbe Gesetz wird sich auf alles übrige Lebendige anwenden lassen.

는 행위는 하나의 변형이다. 독일어 변형 Metamorphose은 어의 상 그리스어 Morphe라는 형태 Gestalt로부터 비롯되는데, 변형은 신화 속에서 인간이 사슴으로 변형되는 예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변형을 의미한다. 그런데 괴테에게서는 사물들이 변형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 변화의 과정을 통제하는 통일적인 기제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괴테의 인식에서 경험과 이념의 문제는 양자 사이에서 어느 것에 방점을 둔다기보다는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이념에 중심을 둔다면 오성적인 종합적 판단으로 자연사물들을 판단하는 것일 뿐 그리고 그 대상 자체(물자체)가 어떤 것인지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고, 반대로 자연사물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괴테가 언급했던 것과 같은 상징식물은 고안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실러에게 말했던 것처럼 항상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순간을 떠나지 않고 이념이 아닌 경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점이 괴테적인 특성인데 여기에는 문제점과 더불어 시인으로서의 괴테적인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2. 경험과 이념의 간격

이러한 사유방식은 자연대상에 중심을 둘 때나 혹은 인간오성에 중심을 둘 때에는 가능하지 않다. 관찰대상인 자연과 인간의 생각하는 행위가 양립하고,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경험적인 요소와 이념적인 요소는 시의 1부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죠. 그대여, 온 정원에
> 섞여 있는 수많은 꽃무리의 소란함이.

많은 이름을 들어보았죠. 그럴 때면 언제나 조잡한
소리를 내며 하나하나 귓속에 밀려들어요.
모든 형태들이 비슷한데도 서로 같지는 않거든요. (5)
그래도 그렇게 합창하듯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신비로운 법칙을,
어떤 성스러운 수수께끼를. 오 그대여, 사랑하는 당신한테라면
지금 바로 행복하게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 해답을![9]

교사이자 연인의 역할을 하는 시의 서정적 주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원 주변에 있는 꽃무리를 가리키며, 얽혀있는 수많은 꽃무리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말을 건넨다. 그 혼란의 실체는 식물의 이름들이(경험 가능한 사물들이) 많기 때문임을 지시해준다. 그 혼란은 엉겨 있는 모습과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생긴 모양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그 형태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자연을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이 그 혼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비슷한 형태들 속에서 하나로 일치되는 공통의 요소 즉 어떤 "신비로운 법칙 ein geheimes Gesetz", "성스러운 수수께끼 ein heiliges Rätsel"가 서로 다른 다양성 속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그 다양한 형태들이 모습과 음향과 시각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지는 합창이 바로 통일성을 지향하고 있다. 5행까지는 경험의 대상을 나머지 3행은 이념의 영역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적 화자는 독자를 이념의 영역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음 괴테의 말에서 이러한 의도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

---

9) Dich verwirret, Geliebte, die tausendfältige Mischung
Dieses Blumengewühls über dem Garten umher;
Viele Namen hörest du an, und immer verdränget
Mit barbarischem Klang einer den andern im Ohr.
Alle Gestalten sind ähnlich, und keine gleichet der andern,(5)
Und so deutet das Chor auf ein geheimes Gesetz,
Auf ein heiliges Rätsel. O könnt' ich dir, liebliche Freundin,
Überliefern sogleich glücklich das lösende Wort!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식물들이 하나의 개념으로 모아질 수 있듯이, 보다 높은 방식으로 직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나에게는 점점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당시 초감각적인 근원식물을 감각적인 형식으로 떠올리려고 요청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모든 형태들의 변화를 추적해서 내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시칠리에서 식물의 모든 부분들이 근원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동일성을 어디에서든지 관찰할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다.[10]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초감각적인 것을 발견하고 다양성 속에서 동일성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실러의 시각에서 보면 경험과 이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태다. 괴테도 자연을 관찰하면서 "자연 안에서 신이, 신 안에서 자연이 영원히 창조하고 작용하게 하는 이념이 그 근저에 있다"[11]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러식의 이념의 기능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험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인간의 오성능력에 의해 대상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괴테는 이념과 경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에 주의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는 괴테에게 매

---

10) Goethe, Morphologie, HA Bd. 13, S.164. Wie sie(die Pflanzen) sich nun unter einen Begriff sammeln lassen, so wurde mir nach und nach klar und klärer, daß die Anschauung noch auf eine höhere Weise belebt werden könnte: eine Forderung, die mir damals unter der sinnlichen Form einer übersinnlichen Urpflanze vorschwebte. Ich ging allen Gestalten, wie sie mir vorkamen, in ihren Veränderungen nach, und so leuchtete mir am letzten Ziel meiner Reise, in Sizilien, die ursprüngliche Identität aller Pflanzteile vorkommen ein, und ich suchte diese nunmehr überall zu verfolgen und wieder gewahr zu werden.

11) Goethe, Bedenken und Ergebung, HA. Bd.13, S. 31. Wir können bei Betrachtung des Weltgebäudes in seiner weitesten Ausdehnung, in seiner letzten Teilbarkeit uns der Vorstellung nicht erwehren, daß dem Ganzen eine Idee zum Grunde liege, wornach Gott in der Natur, die Natur in Gott von Ewigkeit zu Ewigkeit schaffen und wirken möge.

우 중요한 점이다. 괴테에 의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념과 경험 사이의 간격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간격은 우리가 뛰어넘고자 모든 힘을 다하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확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괴테에 의하면 그 간격을 메우려고 이성, 오성, 상상력, 감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간격으로부터 나타나는 문제를 괴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해주고 있다.

> 경험과 이념을 서로 연결하는 어려움은 자연연구를 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념은 시간과 공간과는 무관한데 자연연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이념 안에 동시성과 연속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반대로 경험의 관점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우리가 이념에 따라서 동시적이고 연속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작용은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 같다. 감성이 서로 분리된 상태로 전달한 것을 오성은 결합하여 하나로 생각할 수 없으며 이해된 대상과 사유된 대상 사이의 모순은 언제나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12]

이념이 시간과 공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칸트의 인식론과는 거리가 멀다. 실러의 사유방식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는 칸트의 인식론에서 공간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경험 가능한 그래서 우연한 요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표상으로서 밖에

---

12) Goethe, Ebd., S. 31f. Die Schwierigkeit Idee und Erfahrung miteinander zu verbinden erscheint sehr hinderlich bei aller Naturforschung. Die Idee ist unabhängig von Raum und Zeit, die Naturforschung ist in Raum und Zeit beschränkt, daher ist in der Idee Simultanes und Sukzessives innigst verbunden, auf dem Standpunkt der Erfahrung hingegen immer getrennt, und eine Naturwirkung, die wir der Idee gemß als simultan und sukzessiv zugleich denken sollen, scheint uns in eine Art Wahnsinn zu versetzen. Der Verstand kann nicht vereinigt denken, was die Sinnlichkeit ihm gesondert überlieferte, und so bleibt der Widerstreit zwischen Aufgefaßtem und Ideiertem immerfort unaufgelöst

있는 사물과는 다르다. 시간 또한 우리의 내부에 있는 직관의 형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오성능력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괴테는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러와는 서로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괴테는 자연사물을 관찰하면서 동시성과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자연의 작용”으로 언급한다. 동시성은 경험한 과정의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고 연속성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국면들의 순차적인 변화모습이다. 경험 가능한 연속적인 모습이 동시에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조건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이념인 것이다.

예를 들어 씨, 잎, 줄기, 꽃이라는 식물의 성장과 변형과정은 연속적인 변화과정이고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근원식물은 동시성으로 파악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러식의 인식에서 보면 사물, 개념, 이념으로 전개되는 사유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과는 달리 괴테식의 인식방식에서는 사물과 개념 사이에서 즉 이해된 대상과 사유된 대상 사이에서 메울 수 없는 차이를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감성이 서로 분리된 상태로 전달한 것을 오성은 결합하여 하나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감성과 오성이 하나로 사유될 수 없는 것은 감각과 개념을 연결하는 어려움을 말하고, 그래서 위 시에서 다양한 경험대상들로부터 찾아야 될 이념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수께끼” 혹은 “신비로운 법칙”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을 명쾌하게 칸트식의 이념이라고 하면 판단의 주체인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자연은 그 인간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대상 자체에 대한 인식은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닌 불가지론이 되고 만다. 반면 괴테는 감각과 개념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그 연결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하지만, 자연사물들에 대해서 인간인 내가 항상 상호전제가 되는 순간, 즉

이 양자가 항상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순간을 인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경험과 이념의 연결

괴테에게서 자연은 단순히 인간에게 인식되는 대상이 아니다. 자연은 주체와 동등한 상호작용의 대상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실러식의 인식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지만 현재 작용하고 살아 움직이는 현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괴테의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그의 인식방식을 쉽게 수용하기가 어렵다. 도입부에서 시적 화자는 정원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사물들을 가리키며 그 안에서 이미 눈으로 보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대상을 언급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대상을 표상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시의 중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간부에서의 자연은 수동적인 자연이 아니고 관찰자에게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드러나게 해주는 매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괴테의 생각은 색채에 대한 그의 글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색채는 빛의 행위인데, 행위이자 수용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색채로부터 빛에 대한 같은 해명을 기대할 수 있다. 색채와 빛은 서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이 둘을 전체 자연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은 전적으로 눈이라는 감관에 자신을 각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3]

13) Goethe, Zur Farbenlehre, HA Bd.13, S.315. Die Farben sind Taten des Lichts, Taten und Leiden. In diesem Sinne können wir von denselben Aufschlüsse über das Licht erwarten. Farben und Licht stehen zwar untereinander in dem genauesten Verhältnis, aber wir müssen uns beide als der ganzen Natur angehörig denken: denn sie ist es ganz, die sich dadurch dem Sinne des Auges besonders offenbaren will.

라는 그의 견해를 보면 자연대상이 의미 없이 인식의 대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경험과는 무관하게 우리 인식능력에서 오성의 범주들로 규정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작용의 주체로서 언급되고 있다. 괴테의 생각으로는 순수한 물리적 세계에서는 색채는 성립되지 않고 빛이 우리의 눈에 그것의 능동적이고도 눈의 수동적인 작용의 결과 나타나는 것이 색채이며, 그래서 그 둘 중 어느 것도 도외시할 수 없는 동등한 상태가 완전한 자연의 상태(온전한 자연)라고 한다.[14]

시의 도입부에서 시적 화자는 연인에게 수수께끼와도 같고, 신비로운 법칙과 같은 것으로 안내하면서 전개부에서는 이제 식물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관찰하게 함으로써 연인에게 법칙을 (이념을) 스스로 발견해내도록 유도한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인식의 과정에서 인간의 개념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 빛이 눈에 자극을 주어 색채를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인의 눈에 그 식물들이 작용함으로써 스스로 연인의 생각에서 발현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간부의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자 이제 생성되고 있는 것을 관찰해보아요. 점점 식물이
> 단계적으로 전개되어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지를. (10)
> 식물은 씨앗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곤 바로 열매를 배고 있는
> 고요한 대지의 품이 친절하게도 생명을 틔우도록 허락하고,

---

14) 다음의 인용문은 보다 직접적으로 빛(자연)의 작용을 언급하고 있다. 괴테에 의하면 눈은 빛이 작용해 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다. “눈은 존재하게 된 것을 빛에 감사해야만 한다. 냉담한 동물적인 보조기관으로부터 빛은 자기와 같이 되는 어떤 기관을 불러내어, 내부의 빛이 외부의 빛을 맞이할 수 있도록, 눈은 빛에 닿았을 때 빛을 위해 자신을 만든다.” “Das Auge hat sein Dasein dem Licht zu danken. Aus gleichgültigen tierischen Hülfsorganen ruft sich das Licht ein Organ hervor, das seinesgleichen werde, und so bildet sich das Auge am Lichte fürs Licht, damit das innere Licht dem äußeren entgegentrete.”(Goethe, Zur Farbenlehre, HA Bd.13, S.324.)

곧 바로 빛의 유혹에, 영원히 움직이는 성스런 빛의 유혹에
움틔우기 시작하는 잎새들의 연하디 연한 구조를 맡기는 거죠.
온전하게 씨앗에 힘이 잠자고 있었죠. 앞으로 자랄 싹이(15)
자신의 몸 안에 갇힌 채, 껍데기 안에 몸을 구부린 채,
잎사귀와 뿌리와 싹이, 온전한 형태도 색깔도 없이 있었어요.
건조하게 씨핵이 조용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가,
부드러운 습기에 맡기고는, 위로 용솟음치려 하면서,
방금 어둠의 장막에서 일어나고 있어요.(20)
하지만 처음 나타난 그 형태는 아직 단순해서
식물들 중에서도 어린 싹이라 부르죠.
곧 바로 다음 싹이 생기면서, 마디와 마디가 연이어
탑을 이루어, 언제나 처음 모습을 새로 바꾸어가요.
언제나 똑같은 모습은 아니어요. 당신이 보고 있듯이,(25)
그 다음 잎은 언제나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형성되기 때문에,
끝 부분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더 확장되고, 굴곡이 더 강해지죠,
이것들은 전에 하나의 형태로 기관 속에 잠들고 있었죠.
이렇게 처음으로 최고의 상태로 결정된 완전한 모습이 되었어요.
수많은 종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당신을 놀랍도록 감동시키는 거죠.(30)
많은 옆 맥이 생기고 톱니 모양이 되어, 통통하게 부푼 표면에
싹의 충만함이 자유롭고 무한한 듯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자연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 형태를 억제시켜서
부드럽게 더욱 완성된 모습을 갖도록 조종해가는 거죠.
자연은 수액을 적당히 유도하고 수맥을 좁게 하여,(35)
그 모습이 더욱 부드럽게 작용함을 보여주어요.
조용히 어린 싹은 자라나오려는 가장자리로 물러나면서
줄기의 잎맥이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지죠.
잎이 없기는 하지만 빠른 속도로 연한 줄기가 나와서
그 경이로운 모습이 바라보는 사람을 매혹시키죠.(40)
원모양의 열을 지어 셀 수 있기는 하지만, 무수히
아주 작은 잎이 비슷한 것들과 열 지어 있어요.
축 주변으로 떠받쳐져, 꽃받침이 보호를 하며 드러나는데,
화려한 색깔의 화관이 최상의 모습을 갖도록 허락하죠.
이렇게 자연은 고귀하고 완전한 현상으로 뽐내고,(45)

자연은 열을 지어 마디와 마디가 이어지는 계단모습을 보여주어요.
언제나 당신의 놀라움은 새로울 겁니다. 줄기에 있는 꽃이
엇갈려 있는 잎사귀의 연약한 발판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이런 장관은 새로운 창조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요, 색깔을 갖게 된 잎이 신의 손길을 느끼자,(50)
잎사귀가 갑자기 움츠러들어요. 연하디 연한 형태들은
운명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이중으로 노력해요.
사랑에 겨워 아름다운 쌍들이 나란히
봉헌된 제단 주위에 무수히 열 지어 있어요.
결혼의 신이 여기저기 떠다니며, 향긋한 내음을 강하게(55)
내 뿜어요 달콤한 향내를, 주변의 모든 것을 생기 있게 하죠.
지금 하나하나 나뉘어 무수한 싹들이 올라와요,
귀엽게도 막 부풀어 오르는 과일의 자궁 속에 숨어서.
여기서 자연은 영원한 힘의 순환 고리를 마감하죠.
새로운 고리가 곧 바로 지나간 고리에 가 닿아서,(60)
사슬은 계속해서 오랜 세대를 지나며 이어지고,
전체도, 하나가 살아 있듯이, 그렇게 살아 있는 거죠.[15]

---

15) Werdend betrachte sie nun, wie nach und nach sich die Pflanze,
Stufenweise geführt, bildet zu Blüten und Frucht.(10)
Aus dem Samen entwickelt sie sich, sobald ihn der Erde
Stille befruchtender Schoß hold in das Leben entläßt
Und dem Reize des Lichts, des heiligen, ewig bewegten,
Gleich den zärtesten Lau keimender Blätter empfiehlt.
Einfach schlief in dem Samen die Kraft; ein beginnendes Vorbild(15)
Lag, verschlossen in sich, unter die Hülle gebeugt,
Blatt und Wurzel und Keim, nur halb geformet und farblos;
Trocken erhält so der Kern ruhiges Leben bewahrt,
Quillet strebend empor, sich milder Feuchte vertrauend,
Und erhebt sich sogleich aus der umgebenden Nacht.(20)
Aber einfach bleibt die Gestalt der ersten Erscheinung;
Und so bezeichnet sich auch unter den Pflanzen das Kind.
Gleich darauf ein folgender Trieb, sich erhebend, erneuet,
Knoten auf Knoten getürmt, immer das erste Gebild.
Zwar nicht immer das gleiche; denn mannigfaltig erzeugt sich,(25)
Ausgebildet, du siehst's, immer das folgende Blatt,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이 중간부분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의 제목과 같은

Ausgedehnter, gekerbter, getrennter in Spitzen und Teile,
Die verwachsen vorher ruhten im untern Organ.
Und so erreicht es zuerst die höchst bestimmte Vollendung,
Die bei manchem Geschlecht dich zum Erstaunen bewegt.(30)
Viel gerippt und gezackt, auf mastig strotzender Fläche,
Scheinet die Fülle des Triebs frei und unendlich zu sein.
Doch hier hält die Natur, mit mächtigen Händen, die Bildung
An und lenket sie sanft in das Vollkommnere hin.
Mäßiger leitet sie nun den Saft, verengt die Gefäße,(35)
Und gleich zeigt die Gestalt zärtere Wirkungen an.
Stille zieht sich der Trieb der strebenden Ränder zurücke,
Und die Rippe des Stiels bildet sich völliger aus.
Blattlos aber und schnell erhebt sich der zärtere Stengel,
Und ein Wundergebild zieht den Betrachtenden an.(40)
Rings im Kreise stellet sich nun, gezählet und ohne
Zahl, das kleinere Blatt neben dem ähnlichen hin.
Um die Achse gedrängt, entscheidet der bergende Kelch sich,
Der zur höchsten Gestalt farbige Kronen entläßt.
Also prangt die Natur in hoher, voller Erscheinung,(45)
Und sie zeiget, gereiht, Glieder an Glieder gestuft.
Immer staunst du aufs neue, sobald sich am Stengel die Blume
Über dem schlanken Gerüst wechselnder Blätter bewegt.
Aber die Herrlichkeit wird des neuen Schaffens Verkündung.
Ja, das farbige Blatt fühlet die göttliche Hand.(50)
Und zusammen zieht es sich schnell; die zärtesten Formen,
Zwiefach streben sie vor, sich zu vereinen bestimmt.
Traulich stehen sie nun, die holden Paare, beisammen,
Zahlreich ordnen sie sich um den geweihten. Altar.
Hymen schwebet herbei, und herrliche Düfte, gewaltig,(55)
Strömen süßen Geruch, alles belebend, umher.
Nun vereinzelt schwellen sogleich unzählige Keime,
Hold in den Mutterschoß schwellender Früchte gehüllt.
Und hier schließt die Natur den Ring der ewigen Kräfte;
Doch ein neuer sogleich fasset den vorigen an,(60)
Daß die Kette sich fort durch alle Zeiten verlänge
Und das Ganze belebt, so wie das Einzelne, sei.

산문 「식물의 변형」이라는 글에서 괴테는 시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순서로 식물의 성장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식물 변형에 관한 괴테의 논문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떡잎에 대하여
Ⅱ. 마디마다 줄기 잎이 생김
Ⅲ. 화서로의 이행
Ⅳ. 꽃받침의 형성
Ⅴ. 화관의 형성

시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위 정리내용은 식물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떡잎, 줄기, 화서, 꽃받침 그리고 화관으로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식물 기관들은 그 형태가 다르다. 앞으로 자랄 싹 ein beginnendes Vorbild으로 표현되는 씨 안의 떡잎의 상태는 씨앗에 들어 있는 떡잎과 뿌리 등이 분화되어 성장하기 이전의 상태로부터 앞으로 자라나올 모습을 그려주면서, 꽃의 상태로 변화해가는 "어떤 신비로운 법칙적인 과정 der geheimnisvoll gesetzhafte Vorgang"[16]이 있다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

식물의 변형 과정에서 '떡잎 - 줄기 잎 - 화서 - 꽃받침 - 화관'으로 서로 다른 형태들을 보여주지만, 괴테에 의하면 이 형태들은 단 하나의 기관 ein einziges Organ이 변해서 그 모습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괴테는 그 기관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식물의 변형이라고 했다.[17] 그러니까 변형의 과정은 경험 가능하지만 씨앗에서부터 숨겨져 있는 그 안의 모습 그리고 서로 다르게 경험 가능한 각 단계마다의 다른 형식들로부터 동일한 단 하나의

16) Günther Müller, Die Metamorphose der Pflanze, S.263, in: Benno v. Wiese (Hrsg.), Die deutsche Lyrik, S.251-271.
17) Vgl. Goethe, Die Metamorphose der Pflanze, HA. Bd.13, S.64.

기관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다. 시적 화자는 연인에게 이념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기관을 보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 식물의 발생과정은 빛이 눈에 자극을 가함으로써 눈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과 같이, 관찰자의 눈에 식물들이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나 다름없다. 식물이 씨앗에서 자라는 것은 그것을 품고 있는 고요한 대지가 생명을 틔우도록 허락하기 때문이고(11-12),[18] 잎사귀들은 바로 영원히 움직이는 빛의 자극에 맡긴다(13-14). 시인은 앞으로 자랄 싹이 씨앗에 힘 Kraft으로 잠들어 있다고 하고, 잠든 그 힘은 아무것도 없는 "주변의 어둠으로부터 aus der umgebenden Nacht" 일어나 "첫 모습을 드러낸다 die Gestalt der ersten Erscheinung"고 표현한다. 어린 싹이 어둠으로부터 스스로 일어나지만 sich erheben 대지가 허락하고 빛의 자극이 있기 때문이다(11-22). 이것이 떡잎이 발생하는 과정이며, 이어지는 줄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자연은 보다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자연은 식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지시키기도 하고 더욱 완성된 모습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어지는 화서, 꽃받침, 화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이 식물에게 작용하는 단계를 지나 자연이 인간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다. 식물이 자라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관찰하는 자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anziehen"고 하고 마디 위에 마디가 생겨 화관으로 자라는 과정에 대한 모습을 보고 놀라움은 새롭다고 하며, 이러한 장관을 보고 "새로운 창조를 알린다 des neuen Schaffens Verkündung"고 말한다. 새로운 창조는 빛이 눈을 일깨워서 그 존재를 확인하듯이 자연이 인간의 내면에 새로운 세계를 깨워준다. 그래서 자연이 자라나는 식물에 작용하는 과정 안에는 이미 자연이 관찰하는 자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색깔을 갖게 된 잎이 신의 손길을

18) 이하 본문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시행을 의미한다.

느끼면서 잎사귀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운명적이라고 함으로써 다양성이 필연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모습을 띄는 것이며 그 장소를 “봉헌된 제단”으로 표현하면서 이제는 관찰하는 자는 현실의 감각적인 단계를 넘어설 준비를 한다.

4. 경험과 이념의 공존

괴테에게서 인식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경험으로부터 개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큰 간격이 있다. 즉 괴테는 자신의 생각과 눈으로 본 대상을 개념으로 일치시키기 까지는 수많은 판단의 오류가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시의 내용에서 개념에 해당하는 신비로운 법칙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념이라고 하고, 우리가 신비로운 법칙이라는 개념을 식물이라는 경험적인 요소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자신의 사유능력을 밖에 있는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이념이 나타나는 과정을 내가 대상에 (칸트의 인식론적인 의미에서) 형식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나에게 일깨워 준 것이라고 한다면, 괴테와의 대화에서 괴테가 본 상징식물을 이념이라고 했던 실러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가 된다. 자연에는 이념에 해당하는 신비로운 법칙이 있는데, 시적 화자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자연이 변화해가는 과정으로부터 자신의 내부에 그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이다. 이제 관찰자는 그리고 이 시를 읽는 독자는 모든 식물들이 알려주는 영원한 법칙을 발견하는 단계에 이른다. 발견한다는 것은 능동적이지만 실제로 괴테에게서 이 발견은 밖에 있는 자연사물에 의해서 인간의 내면에 발현되는 수동적인 것이나 다름없고, 나아가 수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고도 능동적인 동시성이 있다. 마지막 시의 부분은 자연의 작용이 이제 인간 내부에서 작용하는 단계를 그려주고 있다.

자, 당신은 이제 시선을 다양한 색채의 무리로 돌려보아요.
그래도 더 이상 정신을 혼란스럽게 동요시키지 않을 거에요.
모든 식물들이 당신에게 영원한 법칙을 알려주고,(65)
모든 꽃들, 이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당신과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여기서 여신의 성스런 문자를 해독하신다면,
어디서든 당신은 그 문자를 보실거에요, 비록 모습이 변화되긴 했지만.
애벌레는 꾸물꾸물 기어가고 부지런한 나비는 일을 서두르고 있어요,
인간은 운명으로 결정된 모습조차 조형적으로 바꾸죠.(70)
오, 생각해보세요, 더욱이 어떻게 알고 있다는 이 싹으로부터
점점 우리 내면에서 우아한 습관이 자라 나왔는지,
우정이 힘차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사랑의 여신이 결국은 꽃과 열매를 맺게 했는지를
생각해보아요, 얼마나 다양하게, 꽃의 모습이든 과일의 모습이든,(75)
조용히 자신을 전개하면서, 자연이 우리의 감정에 하락해주었는지를!
오늘을 즐겁게 지내시죠! 성스런 사랑은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과 견해가 같은 최고의 결실을
맺으려 노력하죠, 그러면 조화로운 관조의 상태에서
연인은 하나가 되고, 보다 높은 세계를 발견하게 되죠.(80)[19]

---

19) Wende nun, o Geliebte, den Blick zum bunten Gewimmel,
Das verwirrend nicht mehr sich vor dem Geiste bewegt.
Jede Pflanze verkündet dir nun die ew'gen Gesetze,(65)
Jede Blume, sie spricht lauter und lauter mit dir.
Aber entzifferst du hier der Göttin heilige Lettern,
Überall siehst du sie dann, auch in verändertem Zug.
Kriechend zaudre die Raupe, der Schmetterling eile geschäftig,
Bildsam ändre der Mensch selbst die bestimmte Gestalt.(70)
O gedenke denn auch, wie aus dem Keim der Bekanntschaft
Nach und nach in uns holde Gewohnheit entsproß,
Freundschaft sich mit Macht aus unserm Innern enthüllte,
Und wie Amor zuletzt Blüten und Früchte gezeugt.
Denke, wie mannigfach bald die, bald jene Gestalten,(75)
Still entfaltend, Natur unsern Gefühlen gelieh'n!
Freue dich auch des heutigen Tags! Die heilige Liebe
Strebt zu der höchsten Frucht gleicher Gesinnungen auf,
Gleicher Ansicht der Dinge, damit in harmonischem Anschau'n

시의 도입부에서 시적 화자가 연인에게 말한 “성스러운 수수께끼”는 결말부에서 모든 식물들이 말해주는 “영원한 법칙”이다. 모든 꽃들이 그러한 법칙을 더욱 큰 소리로 말을 건네고, 연인은 “여신의 성스런 문자”를 해독해내야 하는 것이다. 제단을 매개로 감각적인 단계를 지나 초감각적인 상징적인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떠올리며 여신의 성스러운 문자를 해독해낸 순간 연인은 비로소 눈으로 그 법칙을 보게 된다(68행). 눈으로 바라본 그 상징적 모습은 (여신의 성스런 문자) 원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in verändertem Zug으로서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는 자연의 모습처럼 이제는 인간이 내면에서 이미 고정된 모습을 스스로 바꾸어가게 된다. 자연을 바라보던 인간이 비로소 그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것은 마치 빛이 눈이 존재하게 된 이유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신비로운 법칙, 성스러운 수수께끼로 언급되는 여신의 문자는 경험요소인 식물들로부터 인간의 내면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드러난 것이다.[20] 내면에서 드러난 과정은 식물의 성장과정에 맞게 변화되는 과정을 서술해주고 있다. 인간이 상호 알고 있는 상태 Bekanntschaft를 “싹”으로 표현하고, 친숙해지는 과정 Gewohnheit을 잎으로, 그리고 우정 Freundschaft을 꽃과 열매로 표현한 것이라면, 인간의 만남으로부터 사랑이 움트기까지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괴테는 식물을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념에 해당하는 법칙을 직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21] 식물을 관찰하는

Sich verbinde das Paar, finde die höhere Welt.(80)

20) 외부와는 상관없이 식물의 변형과정을 직관하는 가운데 발견해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칸트의 정언적 명법과 비교되기도 한다. Vgl. Günther Müller, Die Metamorphose der Pflanze, S.267, in: Benno v. Wiese(Hrsg.), Die deutsche Lyrik, S.251-271.

21) Vgl. Dorothea Kuhn, Grundzüge der Goetheschen Morphologie, S.211, in:

경험적인 단계로부터 “여신의 문자”를 발견해내는 과정까지를 경험으로부터 순수이념에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과정을 괴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다. 괴테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사물들의 외적인 모습이 제거된 현상의 순수한 단계로 상승하는 과정을 “경험적 현상”, “과학적 현상”, “순수한 현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22] 자연관찰자는 자연에서 사물을 관찰할 때 불확실하고,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대상들 속에서 고정된 어떤 것을 포착하고 지속적인 것을 찾는데 현재 그 사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방식만이 아니라, 당연히 나타나야만 할 어떤 개연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 과정에는 수많은 간격과 차이들로부터 법칙을 도출해내고 그러한 법칙과 유동적인 현상들이 일치할 때, 인간의 정신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에 접근하는데, 그것을 괴테는 순수하고 영속적인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23] 괴테에 의하면 “순수한 현상은 최종적으로 모든 경험과 실험들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 현상은 결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일련의 현상들 속에서 나타나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 정신은 경험적으로 유동적인 것을 규정하고, 우연을 배제하고, 순수하지 못한 것을 골라내고, 혼란스러운 것을 전개시키고, 미지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24]

이 순수현상을 이 시에 적용하면 서정적 화자가 연인에게 요구했던 “여신의 문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반부에서 “신비로

Goethes Jahrbuch 95(1978), S.199-211.

22) Goethe, Erfahrung und Wissenschaft, HA Bd.13, S.25.

23) Ebd., S.25.

24) Ebd., S.25. Das reine Phänomen steht nun zuletzt als Resultat aller Erfahrungen und Versuche da. Es kann niemals isoliert sein, sondern es zeigt sich in einer stetigen Folge der Erscheinungen. Um es darzustellen bestimmt der menschliche Geist das empirische Wankende, schließt das Zufällige aus, sondert das Unreine, entwickelt das Verworrene, ja entdeckt das Unbekannte.

운 법칙”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그 법칙은 감각적인 대상들인 식물들에 의해 우리들 내면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봉헌된 제단”(54)과 “여신의 성스런 문자(67), “사랑의 여신”(74)은 모두 서정적 주체가 다양한 사물들로부터 벗어난 차원을 지시해주는 시어들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자연을 보면서 비로소 형성된 이념의 영역인 자연의 신비로운 법칙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별견해 낸 개념이 아니고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한(75-76) 것이다. 칸트와 같은 인식론에서는 그 법칙은 인간이 자연에 부여한 개념일 뿐이다. 괴테의 사유방식에서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작용한 결과다.[25] 무엇 때문에 괴테는 인간의 사유를 대상인 자연사물과 분리하지 않았을까?

위 시에서 “고요한 대지의 품”, “빛”, “영원히 움직이는 성스러운 빛의 유혹”, “어둠의 장막”으로 표현되는 시어에서 빛과 어둠이 대비되면서, 식물의 발전과정 전체가 “고요한 대지의 품” 안에 있는 빛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자라날 생명으로 드러나야 될 어떤 세계로(앞으로 자라날 싹으로) 암시된다. 앞으로 나타날 어떤 세계로서 껍질 안에 조용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생명에게 어머니인 대지의 품이 생명을 틔우도록 도와준다(leihen). 경험적인 것을 넘어선 “성스러운 수수께끼”는 “영원히 움직이는 성스러운 빛”을 만드는 것은 “영원히 움직이는” 어떤 것인데, 그 실체는 자연의 “작용하는 힘, 촉진하는 힘”[26]이다. 이 힘은 겉으로 싹이 되어 나오면서 “자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독자에게 상기시킨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영원히 움직이는 힘을 인간의 의지가 아닌 “자연

---

25) 괴테의 사유방식은 자연사물이나 인간의 이념에 모두 우위를 두지 않고 이 양자를 상호전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괴테는 이것을 “자연에 적합한 표현 naturgemäße Darstellung”, “대상적 사유 gegenständliches Denken”로 표현하고 있다. Vgl. HA Bd.13, S.31, S.37ff.

26) Günther Müller, Die Metamorphose der Pflanze, S.264, in: Benno v. Wiese (Hrsg.), Die deutsche Lyrik, S.251-271.

의 강력한 힘"(33행)이라고 한다. 이 강력한 자연의 힘이 작용한 결과가 꽃이며, 새롭게 창조해낸 것이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내면에 드러난 어떤 형상과 같은 것(표상)이다. 꽃은 "자연이 드디어 고귀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뽐내는" 것으로 자연에 내재해 있는 "영원한 힘"의 고리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그 순환 고리가 마감되면서 세대를 이어간다고 표현한다(59-62). 세대를 넘어선 식물은 또다시 대지와 빛으로 조응되는 순환 고리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이라는 여신의 성스러운 문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인간과 자연이 합일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한 합일의 상태에서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오늘을 즐겁게 지내시죠!(77)"라고 말을 건네면서, 식물이 꽃을 피우기까지의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변화된 인간 내면의 상태를 서로 다른 마음이 합일하게 되는 상태 즉 사랑의 상태로 그리고 있다. 그래서 "성스런 사랑은 /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과 견해가 같은 최고의 결실을 / 맺으려 노력하죠(77-79)"에서 다른 생각과 견해들은 "조화로운 관조의 상태에서 / 연인은 하나가 되고(79-80)"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이 하나의 상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보다 높은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80)." 연인이 사랑에서 하나가 되듯이 자연과 마주한 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도출된 그 어떤 상태에 있게 된다. 그 상태가 신비로운 법칙이 있는 곳임을 시인은 지시해주고 있다.

5. 자연과 인간의 합일

이 시에서는 식물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겹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해주는 관계다. 괴테에게 이렇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자연이

있음으로서 비로소 가능하다. 그것은 빛으로 인해서 눈이 깨어나는 것과 같다. 인간은 눈을 통해 대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외부에 있는 것과 동일한 상이 인간에게 형성된다. 감각을 통해서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것, 미지의 것이 눈 안에 드러남으로써 하나의 현상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의 한 요소인 빛이 그 빛과 같은 요소를 눈 속에서 불러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괴테에게 자연현상은 인간의 내면에 미지의 상태에 있는 것을 작용하게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 이 자연을 떠나서 이념의 영역으로 나아가, 이들 둘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상태는 괴테에게 세계의 파괴나 다름없다. 괴테에게 세계는 곧 자연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27]

경험과는 무관한 종합적 판단능력으로서의 순수이성을 전제로 하는 인식에서는(즉 순수사변에서는) 대상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 자체에 대한 인식은 가능하지 않다. 이때 대상자체를 인식할 수는 없지만, 감각을 통해 우리가 직관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판단능력을 작동하게 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대상에 대한 기능은 사라짐으로써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칸트에게서 자연이 인간에게 그 법칙을 발견하게 하는 즉 인간 내면의 도덕법칙을 발견하게 하는 기나긴 여정을 열어주는 기능을 하지만, 이때 인간 우위의 사유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극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생각하는 영역 그러니까 표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유행위가 진리이고 법칙일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인간중심 사유에서의 독단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괴테가 자연을 전제로 하고 자연으로

27) 현상으로부터의 초월(Transzendenz)은 괴테에게 거부될 수 밖에 없으며, 감각과 초감각, 현상과 이념, 개체와 전체, 특수와 보편은 마찬가지로 분리될 수 없다. Vgl. Helmut Heißenbüttel, Farbige Schatten, in: Heinz Ludwig Arnold (Hrsg.), Johann Wolfgang v. Goethe, text +kritik, S.258-266.

인해서 발생하는 세계에 중심을 두고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그 과정에서 결코 인간사유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는 인간이 자신의 판단기준을 오성중심으로 삼을 때 발생하게 된다. 괴테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출해서는 안 되며, 관찰하는 사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고 말한다.[28] 나아가 인간에게 경험과 이념은 불가분 상호작용의 요소들로서 경험은 이념이 극복해야하는 객체가 아니라는 점을 괴테에게서 읽어낼 수 있다. 작가로서 자연을 관찰한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괴테의 이러한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은, 칸트 이후 근대성으로 나타나는 요소 즉 주체는 객체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 사유의 방식이 우세한 상황을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차 문헌>

Goethe, Johann Wolfgang von, Die Metamorphose der Pflanze, HA, Bd. 13, p.64.
_____, Bedenken und Ergebung, HA. Bd.13.
_____, Der Versuch als Vermittler von Objekt und Subjekt, HA, Bd. 13.
_____, Einwirkung der neueren Philosophie, HA BD.13.
_____, Erfahrung und Wissenschaft, HA Bd.13
_____, Glückliches Ereignis, HA. Bd.10

28) Vgl. Goethe, Der Versuch als Vermittler von Objekt und Subjekt, in: HA Bd.13, S.10.

_____, Zur Farbenlehre, HA Bd.13

(HA=Hamburgerausgabe in 14 Bänden, hrsg. von Erich Trunz, München 1989)

<2차 문헌>

칸트, 임마누엘, 백종현 옮김, 『순수이성비판 1, 2권』, 아카넷 2009.

Arz, Maike, “Die Metamorphose der Pflanzen”, *Goethe Handbuch* Bd.1, Stuttgart, Weimar, 1996, S. 253-256.

Becker, Hans Joachim, Über die Metamorphoseder Pflanzen, *Goethe Handbuch*, Bd. 1, Bd. 3, S. 690-702.

Engel, Manfred, *Der Roman der Goethezei,*. Bd.I, Anfänge in Klassik und Frühromantik: transzendentale Geschichten, Stuttgart, Weimar 1993.

Feger, Hans, *Die Macht der Einbildungskraft*, Heidelberg, 1995.

Günzler, Claus, *Das Teleologieproblem bei Kant und Goethe,* Freiburg im B, 1964.

Heißenbüttel, Helmut, Farbige Schatten, Heinz Ludwig Arnold (Hrsg.), Johann Wolfgang v. Goethe, text +kritik, S. 258-266.

Kuhn, Dorothea, Grundzüge der Goetheschen Morphologie, *Goethes Jahrbuch* 95, 1978, S. 199-211.

Metzler, Helmut, Wechselbeziehungen zwischen Naturverständnis und Unterschieden in der dialektischen Methode bei Goethe und Hegel, E. Lange(Hrsg.), *Philosophie und Natur,* S.174-184.

Müller, Günther, Die Metamorphose der Pflanze, Benno v. Wiese (Hrsg.), Die deutsche Lyrik, S. 251-271.

Noé-Rumberg, Dorothea-Michaela, *Naturgesetze als Dichtungsprinzipien*, 1993.

Rehbock, Theda, *Goethe und die Rettung der Phänomene*, Konstanz, 1995.

Rintelen, Fritz-Joachim von, *Der Rang des Geistes*, Tübingen, 1955.

Erfahrung und Idee bei Goethe in dem Gedicht “Metamorphose der Pflanze”

Lim, Jai-Dong

Das Charakteristische der kantischen Philosophie, anders als die Denkungsweise von Goethe, besteht bei der Begrenzung der Idee auf dem Umkreis der Erfahrung. Wenn wir nach Kant die Gegenstände nicht sinnlich empfinden, wird keine Idee in uns klar, denn wir können den Verstand nur mittels sinnlicher Empfindungen geltend machen. Man hat für die sinnlichen Empfindungen die Anschauung nötig. Anschauungen sind Vorstellungen in uns, die auf sinnliche Wahrnehmungen bezogen werden können. Die Erkenntnis kann nach Kant im Zusammenspiel Anschauung und Begriff zustande. Anschauung und Begriff werden dabei ferner von den sinnlichen Gegenständen erzeugt, denn nur das Wechselspiel von reiner Anschauung und reinem Begriff bewirkt die reine Erkenntnis. Die Fragestellung ‘Wie ist synthetisches Urteil a priori möglich, das von der Erfahrung unabhängig ist’ hat Kant gelöst, indem er die Verstandsfähigkeit im Denken vorausgesetzt hat. In solcher Denkensweise sind Erfahrung(Natur) und Idee(Mensch) nicht in Übereinstimmung.

Erfahrung und Idee unterscheiden sich dagegen bei Goethe nicht. Das Erkennen Goethes, in dem die Naturgegenstände und der Mensch in Wechselwirkung sind, führt nicht zur reinen Spekulation führen, denn Goethe will beim Erkennen Erfahrungsmaterial erhalten. Bei dieser polarisierenden Betrachtungsweise erhalten sich beide Seiten. Auch bei Goethe geht es darum, dass Erfahrung gegeben sein muss, die einer Idee angemessen sein sollte. Die sichtbare Welt, die wir erfahren können, ist nach Goethe dem Menschen erst durch die Naturgegenstände offenbart. Man muss beide, die Erfahrung(die sichtbare Welt) und die Idee (Mensch) der ganzen Natur angehörig denken. Denn die Natur ist etwas Vermittelndes, durch das sich die Welt dem Sinne des Menschen offenbart. Die Natur ist kein Gegenstand als Objekt, den man als Ding an sich nicht erkennen kann, sondern man kann vielmehr die Natur sogar für ein Subjekt

halten, durch deren Zusammenwirkung erst die Welt ermöglicht wird. Goethes Methode ist situiert im organischen Wechsel von Natur und Mensch. Festzustellen ist, dass diese Betrachtungsweise von ‘Metamorphose der Pflanze’ dargestellt wird.

Das lyrische Ich führt in diesem Gedicht die Geliebte zur Wahrnehmung des heiligen Rätsels, ‘ein geheimes Gesetz’, das sie unter allen ähnlichen verwirrenden Gestalten der Pflanzen zu sehen vermag(Z. 1-8). Das Gesetz erweist sich in der Zeile 67 als die heilige Letter der Göttin, die die Pflanze der Geliebten verkündet. Ein geheimes Gesetz ist nach Kant eine Idee, die von den vielen verschiedenen Pflanzen abstrahiert wird. Aber das Gesetz ist im Gedicht entsprechend dem Entwicklungsprozess der Pflanze – als Samen, Stengel, Blüte, Frucht- in den Augen der Geliebten erschienen. Der Schoß der Erde entläßt dem Samen, ein beginnendes Vorbild(Z.15), die Pflanze empfiehlt sich dem Reize des Lichts. Das Blatt, das im Samen als Kraft eingeschlossen ist, steht aus der umgebenden Nacht auf und bringt die Gestalt der ersten Erscheinung hervor. Diese Naturerscheinung resultiert indes nicht aus dem Begriff des Verstandes, sondern offenbart sich im Betrachten der Geliebten. Der Mensch und die Natur sind im Gedicht in Einklang.

Key words: Erfahrung, Idee, Metamorphose, Natur

임재동
소속: 충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217동 103호
전화번호: 010-9842-0022
전자우편: kgoethe@daum.net

이 논문은 2013년 2월 25일 투고하여
2013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30일 게재 확정함.